

창작 활동으로 인간 순수의  
내면을 표현하는 전문음악인

---

#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

[http://music.khu.ac.kr/  
contents/bbs/bbs\\_content.html?bbs\\_cls\\_cd=002001001](http://music.khu.ac.kr/contents/bbs/bbs_content.html?bbs_cls_cd=002001001)



##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예술교육 실시

작곡과는 대한민국 창작 예술 음악의 최종심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음악성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여 창의적 예술교육 실시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음악계의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노력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부단히 변화하는 예술 감각에 상응하고 다가올 고도의 산업·정보화 사회의 음악적 자원 활용 및 첨단 기기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개인지도 및 세미나교육, 국가 인류 사회에 문화적인 봉사, 국내외 콩쿠르를 통한 창작 자질 개발, 창작 작품 발표 연주회를 통한 작곡 능력을 향상시켜 창작으로 음악의 대세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 21세기 작곡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

작곡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과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적인 교강사진을 구축하고, 매년 경희 국제 작곡 페스티벌과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독일, 미국, 일본, 대만 등 국제적인 교류와 창작 음악의 국제화, 현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매 학기 개인 레슨 작곡 실기(1~8)를 비롯하여 전통화성, 현대화성, 현대음악론, 현대음악세미나 등으로 이어지는 현대음악교육과 악기론 관현악법, 현대관현악법, 지휘법 등으로 이어지는 악기관련 강좌, 그리고 전자음악개론, 전자음악(1~4)으로 이어지는 전자음악강좌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작곡 연주(1~4), 국악 관련 강좌와 음악사 등의 이론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작곡 기술 습득과 철학적 사유를 통한 예술적 안목, 그리고 새로운 음향을 위한 전자음악 교육으로 21세기 예술가를 양성하고 시대적, 예술적 통찰력을 키웁니다.

---

## 수많은 음악 활동을 전개하는 졸업생들

졸업생들은 1965년 경희 칸타타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남녀 고교 음악경연대회, 지방순회공연 및 작곡발표회, 작곡집 발간 등 수많은 음악 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예술교육을 위해 해외 유학, 국내 대학원 진학, 방송국 및 기획사 취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학의 교강사와 중·고교 음악교사, 영화·대중·실용 음악 작곡가로도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의 상임작곡가로 취업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서울 문화재단 등의 각종 기관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작곡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데, 특히 해외의 저명한 국제 콩쿠르 입상자와 동아, 중앙, 창악회 등의 국내 작곡 콩쿠르에 다수의 최우수 입상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작곡가로서 활동하며 한국 작곡가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시대, 수업 방향은?

작곡과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론 중심 과목은 콘텐츠 및 과제중심 수업이 아닌 원격 플랫폼 매체를 통한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수업을 통해 진행하며, 음악예술 관련 작품 감상과 온라인 토론을 통해 대면 수업의 장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실기 과목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분반 수업 및 교강사와 1:1 레슨을 통해 접촉 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에게는 Zoom을 활용한 레슨 방식도 진행 중입니다.



### 입시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작곡과는 매 학년 16명씩 총 64명의 작곡 학도들이 치열한 학구열로 창작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며 입학시험에는 기존 3부 형식의 음악 쓰기 외 자유로운 형식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화성법과 청음, 피아노를 통해 음악 실기의 기본기를 평가합니다.